

빌립보서 3  
C#2608-1  
By Pastor Chuck Smith

3장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Philippians 3.

Again, remember that the background of this epistle, Paul is chained to a Roman soldier in Rome, in prison, writing to the Philippians. The keynote of the epistle is rejoice, and he said,

*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3:1).*

You know, oftentime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joice in circumstances. In fact, I think sometimes it is impossible to rejoice in circumstances. I just did a dumb thing, I ran through a red light and hit somebody and I am being sued for a million dollars. It is hard to rejoice in circumstances. But you can always rejoice in the Lord, because He is above circumstances. So, the exhortation in the scripture is always that of rejoicing in the Lord. And Paul writes,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to me indeed is not grievous (3:1),*

자, 이제 다같이 빌립보서 3장을 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 서신의 배경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바울은 로마군인과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의 요점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1)**

아시다시피, 많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바보같은 짓을 저질러 빨간 신호등에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죽여 백만불의 고소를 당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3:1)**

In other words, "Here I am, I am chained in prison, but I don't find it hard to write this to you. I am rejoicing here, in the Lord." I am sure he wasn't rejoicing in the circumstances themselves. They were rather miserable, but that does not stop you from rejoicing in the Lord. There is always cause to rejoice in the Lord.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너희들에게 서신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여기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물론 상황 그 자체는 기뻐할 수가 없었겠지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것이 주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but for you it is safe. Beware of dogs (3:1-2),*

Now, immediately after telling them to rejoice in the Lord, he is warning them about the false teachers. Paul had certain people that seemed to follow him wherever he went, trying to pervert that which he taught of the grace of God, especially the Jewish legalizers who sought to bring the people back to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putting them under the law. They demanded that they be circumcised and they keep the law of Moses in order to be saved, which Paul called the pervers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3:1-2)**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경고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율법 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 돌아가서 그들을 율법 아래 두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these people usually referred to the Gentiles as dogs. That was a common name by which the Jews referred to the Gentiles: the gentile dogs. It was not a reference to a kindly family pet, but it was a reference to those mean wild dogs that roamed Israel. Barking and snapping at everybody, and belonging to nobody. And they were a sort of a hated animal. And thus the name *dog* the Jews began to apply to the Gentiles. It is interesting that Paul turns it around and uses it of those teachers that would seek to put the believers back under the law.

흥미로운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방인 개들이라고 부르는 통용적인 이름이 었습니다. 그것은 애완견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처없이 떠도는 거친 개들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향해 짖고 물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미움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다시 돌려 신자들을 율법 아래 두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칭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Beware of dogs, beware of evil workers, beware of the concision (3:2).*

The word *concision* comes from a Greek word, which means *mutilators*. Paul is talking about their demands that the Gentiles be circumcised to be saved. And then he uses a contrasting Greek word, and it is a play on Greek words. If you read any Greek, you can pick up on the play on words. "Beware of the concision."

*For we are the circumcision, which worship God in the spirit (3:3),*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2)**

분열 혹은 분리 (concision) 이란 말은 헬라어로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요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 사용법이지요. 여러분이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단어의 사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훼손 시키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우리가 곧 하례당이라. (3:3)**

Paul was constantly emphasizing that the physical rites had no value except there be a corresponding spiritual experience, that the circumcision of the flesh accounted for nothing. What God was interested in is that my heart was circumcised, that I had the heart after the Spirit, and not after the flesh. And though I may have a fleshly rite, if my heart was after the things of the flesh, then what happened to me physically has no bearing upon my relationship with God at all. The same can be said of any of the other rites that we have within the church. The rite of water baptism is really not a physical rite, but a spiritual experience. It is not the physical experience that saves, it is the spiritual: the death to the old nature and the old man in my heart, the reckoning of myself to be dead, and living that new life in the resurrected Lord. And so Paul says, "Beware of those who would mutilate your body, for we are of those who are circumcised in the spirit." We worship God in the spirit.

Jesus said,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rejoice in Christ Jesus (3:3),*

바울은 영적 체험이 없는 육신적인 관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육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것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관습을 지킨다고 해도, 내 마음이 육의 것을 따르면, 내게 행한 육신의 관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못줍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모든 관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침례식은 육신의 관습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는 육신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은 죽고,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진 것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육신을 불완전하게 하는 무리를 삼가라. 우리는 영으로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찌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3:3)**

And that is in the glorious liberty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that relationship that we can now have with God apart from the law.

*and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3:3).*

Now, Paul said in his Roman epistle, "I know in me, that is in my flesh, there dwells no good thing." I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Paul said,

*Though I might also have confidence in the flesh. If any other man thinketh that he hath whereof he might trust in the flesh, I more [If anyone might have something to boast in the flesh. I am the one who would]: Circumcised the eighth day, of the stock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the Hebrews; as touching the law, a Pharisee; Concerning zeal, persecuting the church; touching the righteousness which is in the law, blameless (3:4-6).*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영광스런 자유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3:3)**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롬 7:18)”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3:4-6)**

Hey, this is a pretty good pedigree. I mean, if you can be saved by works, if you can be saved by your own efforts, if you can be saved by keeping the law, then Paul said, "Hey, I am ahead of the pack. I more than anybody else. I had everything going for me as far as righteousness from the law."

꽤 좋은 족보입니다.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나의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율법의 의로 따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You remember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chapter 5 of Matthew, said, "Except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you shall in no wise enter the kingdom of heaven." Now, Paul was a classic example of what Jesus was referring to. As far as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Paul had it. He had done everything that he was supposed to do according to the law to be righteous. In fact, he had gone beyond. He was a Pharisee. He persecuted the church. As far as his zeal and according to the righteousness that is in the law, he was blameless. But still, that is not enough to bring a man an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예가 되는 인물입니다. 의로움으로 따진다면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능가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열심히 보나 율법의 의로움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는 흠이 없었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합니다.

Now, here they were going around and trying to tell the Gentile believers that you had to keep the law to be righteous. Paul said, "No, I came out of that. I had it made as far as the law was concerned." But then this monumental statement,

*But what things were gain to me, those I counted loss for Christ*  
(3:7).

All of this background that put me in a high standing as far as the law is concerned I counted loss for Christ.

*Yea doubtless, and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3:8):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아니야, 나는 율법을 벗어났으며,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모든것을 다 해봤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은 기록적인 성명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3:7)

율법에 관해서는 최상의 자격을 갖추었던 모든 배경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3:8)

Paul the apostle is on his way to Damascus to persecute the church. He had papers from the high priest that empowered him to throw in prison those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as he headed out towards Damascus, he was going out with threatenings of murder against the believers. But while he was on his way, just before arriving in Damascus about noontime, there came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noonday sun. Paul fell on the ground, and there the Lord spoke to him and said,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And he answered, "Who art thou, Lord that I may serve thee?" And He said, "I am Jesus. It has been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pricks." And there Paul was converted. He met Christ on the Damascus road. Suddenly upon meeting Christ, all that he counted as important to him up to that point in his life, all of his religious credits, all of the religious background, he said lost for Christ. Because this is going to bring him an estrangement from his cronies back in Jerusalem that he has been going around with.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부터 공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까이 왔을때 신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때 정오쯤 되어 정오의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췄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제가 섬겨야 할 주는 뉘시오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바울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갑작스레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그가 그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 그의 종교적인 신임과 배경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Paul is writing this epistle to the Philippians some thirty years after the Damascus road experience. He is referring to it, "The things which were gain to me, I counted loss for Christ, thirty years ago, on the road to Damascus." But then Paul updates his experience. And he said, "Yea doubtless, and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In other words, "I experienced it thirty years ago, and I had a turn-around in my life, and all of the past legalism and leg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ll of those endeavors in my own flesh, the works of my flesh, I counted loss. Now I do count them, thirty years later, I still count them loss."

다메섹상에서의 체험이후 삼십여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삼십년전 다메섹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의 체험을 새롭게 합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삼십년 전에 내가 그것을 체험했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 과거의 모든 율법주의와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 육신의 모든 노력, 육신의 일들이 모두 해로 여겨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삼십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

A lot of people testify of an experience that they had in Christ years ago. "Oh, I had such a glorious experience, the Lord met me in such a powerful way. And I just dedicated my life completely to the Lord. I was so moved, I was so touched by the Spirit of God upon my life." But unfortunately, since then, a lot of those things that they counted loss at that point, they picked back up, so that they are encumbered again. You see, past experience is only valid if it is translated into the present. If the past experience has not been translated into the present, then it really has no value at all. There is really no value to say I counted those things loss for Christ thirty years ago, if in the meantime I have picked them back up and I am encumbered with them again. Always, we must be able to translate the past experience into the present relationship if it is to be a valid experience at all. Otherwise, the experience is invalidated.

많은 이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간증들을 말합니다. “오, 너무도 영광스런 체험이었고,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다.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했고, 성령께서 나와 내 삶에 큰 감동을 주셨다.” 그러나, 불행이도, 그 때 해로 여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 짐을 지고 번민하곤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체험은 그것이 현재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이 현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삼십년 전 해로 여기던 것을 다시 하면서 짐을 지고 번민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체험이 현재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도록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I really am not so much interested in what happened to you thirty years ago, twenty years ago, or ten years ago. I am interested in what is your relationship tonight with the Lord. That is what is important. Experiences are good. Thank God for the experiences, but they are not valid unless they are translated into the immediate, present relationship, and I do count them but loss. It is still going on. The past is translated into the present.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I love that phrase.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저는 여러분이 지난 삼십년 전, 이십년 전, 십년 전에 어떠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주님과과의 관계가 어떠한 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당장 현재의 관계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해로 여겨질 따름입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I think that we have to be the most blessed and privileged people in the world. You know,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world tonight who have never had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our Lord. People lived and died without ever having heard of Jesus Christ our Lord. Not only do we have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but we have the privilege of gathering together and studying the word of God together. What some people wouldn't give for the opportunity of gathering with us.

He sai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3:8),*

제 생각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특권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3:8)**

Indeed Paul did. He was totally, completely ostracized by those who were once his compatriots, those whom he once shared with. When he received Jesus Christ, as far as they were concerned, he was dead. He no longer existed. But he said those things which were so important to me, those things for which I lived,

*And do count them but dung [as refuse], that I may w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mine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the faith of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by faith (3:8-9):*

바울은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같이 동고동락하던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절교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때, 그들에게 바울은 죽었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들은 그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으며 그것들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3:8-9)

Now, Paul had excelled in the righteousness in the law. He said he was blameless. But he said he cast that over for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He counts all of the works of the past just wasted effort, refuse. "My desire is to know Him, and to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my works through the law, but now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by faith, that righteousness which is imputed to those who believe, that righteousness that Abraham had when God imputed his faith for righteousness.

바울은 율법의 의으로는 뛰어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기울어졌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헛된 노력 즉 쓰레기같이 여겼습니다.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율법을 지키므로 얻는 내 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고 주셨던 그 의를 말합니다.

Now, I can endeavor to be righteous before God by my own works and efforts. I must, first of all, set the standard: what constitutes righteousness?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nd having determined then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I may then seek to always do that which is right. Work hard at doing that which is right. And, at best, I can develop a self-righteousness. The effect of it usually on the individual who has obtained such a thing: I keep the rules; I never do anything wrong; I always do what is good; I am a doo bee; I am just living by these righteous standards. The effect upon the individual is usually pride and the developing of a judgmental attitude.

내가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수는 있지만,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의를 이루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섰다면, 이젠 항상 옳은 일을 하도록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일을 열심히 하면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개발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주로: 나는 법을 지킨다;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항상 선한 일만 한다; 열심히 일한다; 나는 의의 기준에 맞춰 산다.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주로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태도가 형성 되는 것입니다.

As the Pharisee who went in before the Lord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I am not as other men. I am not an extortioner, and the other things. God, I thank you that I am so good," that pride and self-righteousness. But then, worse than



that, this judgmental spirit. Because suddenly, you see, I am on a little spiritual pinnacle, and I can begin now to judge everybody else who doesn't live by the same standards of holiness by which I live. "How can they say they are a child of God? How can they say..." and here I am in my little pompous righteous throne, judging everybody else who isn't living by my standards. It can be a very dangerous thing.

주님보다 앞서 들어간 바리새인이 말했듯, "아버지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토색하는자가 아닌 것과 다른 일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선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스스로 의롭게 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내가 영적 절정에 다달아 자신보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신이 아주 당당한 정의의 자리에 앉아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On the other hand, I can recognize that I have a problem with sin, with myself, with my flesh. I can be honest with myself. When I have been upset (because that is against my rules, never be upset) and so I am upset, I have to lie to myself and say, "I really wasn't upset, I was just indignant." And you can become a phony, because, you know, you set your own standards; you live by your own rules. But when I take the righteousness which is by Christ, it is an honest life, I can say, "Hey, I am not perfect, but I believe in Jesus Christ with all my heart. He is my Savior. He is my Lord." And God then imputes to me, or accounts to me, righteousness. On my account, God writes *righteous*.

그와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와 나 자신과 육신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가 너무 날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다. 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그저 기분이 좀 나쁠 뿐이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절대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그 세운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가 진실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얻으면 정직한 삶이 됩니다. "난 완전한지 못하지만,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단에 의롭다고 적으십니다.

Now, the problem of being righteous by my efforts, by my works, I may be doing right, I may have lived all of my life up to this point by the rules, having never violated, sailing along in good shape, and there is written across my name, righteous. But tomorrow, some nut pulls in front of me on the freeway and then blocks and traps me, and I may shake my fist and honk my horn, and say, "Get off the road, you fool." And all of my good record down the tube and the righteousness is erased. I blew it. Oh, what a shame. Here, my entire life I have never done anything wrong, have been going by the rules, up till now. You see, there would be no security in that kind of righteousness at all. And any moment I could lose it. But not the righteousness which God has accounted to m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Because I may blow my horn and shake my fist, but the Spirit will say, "Hey, don't you remember you have got a fish emblem on the back

of your car?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you pass the guy?" And I may pull over to the side of the freeway and decide not to pass him so that I won't be a bad witness, and bow my head and say, "God, I am sorry. That isn't a real representative of You. Forgive me, Lord."

나의 노력 또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따르는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옳은 일만 하고, 모든 법을 지키고, 모든것을 잘 해서 내 이름에 의롭다고 적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일,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어 내 차를 가로 막아 버리면 팔을 휘두르고 경적을 울리며, "바보 같은 녀석, 고속 도로에서 사라져!" 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선한 일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나의 의는 지워지고 맙니다. 망쳤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내 평생에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고, 모든 법을 지키며 살아 왔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에는 보장이 없고 어느 한 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팔을 흔들고 경적을 울릴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기억하지 못하니? 저 차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려구?" 그러면, 차를 옆으로 비켜줘서 내가 잘못된 증인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고개숙여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방금 그 행동은 당신을 진실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You see, the angel doesn't have to erase the righteousness and then rewrite it, or whatever. It stays there. The righteousness through faith in Christ, my faith in Jesus doesn't waver. My actions they may, but not my faith in Him. And the righteousness is accounted to me by my faith in Him. And so, it is an established righteousness. No wonder Paul opted for the new righteousness, though he had done pretty good up until this point. "Do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tomorrow, so hey, I will jump this ship and get on this one and I will gladly throw overboard the old life, with the struggle and the effort in my flesh, in order to live this new life after the Spirit, believing and trusting in Jesus Christ, to do for me what I really can't do for myself. And to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bu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through faith."

천사가 그 의를 지우고, 다시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는 바뀔 수 있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워진 의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도 왜 새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지 알만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난 이 배에 올라, 내 육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왔던 옛 사람을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율법아래 있는 나의 의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다."

Probably the best illustration I have heard of this particular passage is the story of the young girl who came from very poor circumstances, but was diligent and worked hard to work her way through college. And now she was in her senior year. They were going to have the senior prom. And she was so excited over the fact that she had been able to labor and work and make her way through college and was going to be graduating. So, she decided that she would make for herself a

new dress for the senior prom. Now, because she had spent all of her money on tuition, and just getting by, on her books, and everything else, she really didn't have much money. She couldn't buy a dress, but she really didn't have much money to buy very good material. But she went down to the dime store and picked out the best that she could afford, bought a simplicity pattern. She laid the thing out, carefully cut it out, but she really had never sewn anything before. So, by the trial and error method, the redoing a lot of the seams and all, and the hem wasn't really straight, but it was a good effort. She gave it her best. It was surely the best that she could do. And so, she put it on and she walked out in the dorm where the other girls were and she said, "Look girls, this is my new dress for the prom. I made it myself." And they were kind to her, they said, "Oh, that is nice," but they did notice the imperfections in it. And did feel rather sorry for her. But they recognized that it was the best that she could do.

아마도 내가 들은 예화 중에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열심히 일하여 대학까지 졸업한 부지런한 한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 졸업파티를 가게 되어 너무나 기뻐서 부풀었지만, 그동안 등록금과 책을 사느라 막상 드레스를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처녀는 좋은 천을 살 만한돈이 없어서 구제품 상점에 가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천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천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에 바느질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서투른 솜씨로 바느질을 하며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바르게 되지 않았지만 좋은 노력의 결과로 그가 만들수 있는 최상의 옷을 만들었으며 한숨 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만든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애들아, 내가 파티에 입고갈 드레스야. 내가 순수 만들었어.”하며 자랑했을때, “오, 그거 좋다” 라고 했지만 서투른 솜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최선을 다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About that time, Lady Bountiful walked in the door. And she saw this young girl, modeling her dress and she said, "Would you mind going with me?" And the young girl went outside, and there was a limousine chauffeur, and they went down to I. Magnum's, and the chauffeur took the car up. They went in. And so the models started coming in with all these beautiful dresses showing them off and doing their little stances and all, and a model came in that had a dress that was absolutely gorgeous. She just sort of caught her breath when she saw it, it was just such a glorious gown.

Lady Bountiful, being very astute, noticed that she gasped at that one. She called the model over that they might look at it more closely and feel the texture of the material, and obviously she was very impressed with it. But as the model was turning around, her eye caught the ticket with the price tag \$4,295.00. And she thought, "Oh my, I didn't dream anything could cost that much." But, Lady Bountiful, seeing her interest in it, said to the clerk, wrap it up and have it sent to the car.

그러던 중, 한 부인이 들어와 이 젊은 처녀가 옷을 입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녀를 리무진에 태워 아름다운 드레스와 모델들이 있는 백화점에 데리고 들어가 여기 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델이 아주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처녀가 어느 한 드레스를 눈여겨 보는 것을 본 부인은 눈치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모델을 불러서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그 처녀에게 보였습니다. 이 처녀는 그 옷을 자세히 보고 옷의 촉감이 너무 좋아 완전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모델이 옷을 돌려줄때 그 처녀의 눈은 무려 \$4,295.00 이라고 적힌 가격표에 눈이 사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오, 난 이렇게나 비싼 물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나 부인은 이 처녀가 그 옷에 관심있어 하는 것을 보고 점원에게 이야기하여 차에 보냈습니다.

When she got back to the dorm, she went into her room and she carefully unwrapped this dress, put it on; it fit perfectly. Now she walks back out where all of the girls are waiting, and she said, "Look girls," and as they gasp in amazement at the glory and the beauty of the dress, she said, "This is something that I could have never purchased for myself. It is something that I could have never made for myself, but it was given to me by Lady Bountiful."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와 조심스레 드레스를 풀어서 입어 보니 자신에게 꼭 맞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곳에 가서 섰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에 끌려 쳐다보았습니다. 그 처녀가 말하기를, “얘들아, 이것은 내가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한 부인이 내게 주셨어.”

So Paul, he had done his best to clothe himself in righteousness by works, but then he came in to that glorious knowledge of Jesus Christ, and, "No longer," he said, "to be found in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my own making, my own work, but I will gladly exchange that for the glorious righteousness which God has accounted to m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through faith. Something that I could never purchase for myself, something that I could never do for myself. With all of my efforts I could never come up to that. And yet, that is what God has imparted to me through faith, my faith that He has given to me, in Jesus Christ.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스런 지식을 갖게 된 후, “더 이상 율법이나 나의 의와 행함과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영광스런 의와 바꾸겠노라.”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얻어지는 행할수도 없는것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를 수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그가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입니다.

Paul goes on,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3:10),*

And at this point we also say, "Ya, ya, power, I want power. I would like to know Him in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Give me the power," and we are so power-hungry. But Paul didn't stop there did he?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3:10),*

Hey, wait a minute, Paul; I want to get off at the last stop. I don't know about this suffering bit. I like the power, but I don't like the suffering. Don't you know that Christians don't have to suffer?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3:10)**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아. 권능, 난 권능을 원합니다. 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내게 권능을 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권능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3:10)**

잠깐만요, 바울 선생님; 전 마지막 정거장에서 빠지겠습니다. 전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는 권능은 좋아 하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Our flesh always rebels against suffering. The disciples found it difficult to handle when Jesus started talking about the suffering that he was to experience, and Peter cried out, "Lord, be that far from thee." And Jesus said, "Get thee behind me, Satan, you offend me." It was the natural cry of man, "Spare yourself from suffering." But Paul is willing to follow Jesus to the cross. "I want to know him; I want to know him completely." Yes,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but you know, you can never know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until you have, first of all, know the cross. Jesus wasn't resurrected until he first went to the cross. The resurrected life always follows the crucified lif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follows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 and the cross. And so yes, I want to know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but if I am to experience that, I have got to, first of all, experience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 the death on the cross, the death to my old self, my old nature.

우리 육신을 항상 고난에 저항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감당하기 어렵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고난을 면하라.”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분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결단코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가실때 까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항상 고난의 삶 뒤에 따라옵니다. 부활의 권능은 고난에 참여함과 십자가가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려면 먼저 고난에 참여함, 십자가의 죽음,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being made conformable unto his death; if by any means I might attain un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3:10–11).*

But how can you atta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unless you, first of all, have died? You see, Jesus could not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until the cross. The cross was essential and necessary for Him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So it is true with us. I am crucified with Christ, now I can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ed life. And many people have never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resurrected life, because they have shied away from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 and of the crucified with Christ life. "I want to hang on to the flesh. I don't want to see it nailed to the cross. I want to hold on to the things of the flesh." But you will never know the life of the resurrected Christ until you have experienced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s.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3:10-11)

하지만, 당신이 먼저 죽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데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난 이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함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못박히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난 육신을 의지합니다. 십자에 못박히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권능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If by any means I might attain un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Not as though I had already attained, either were already perfect (3:11-12):*

It is sort of sad that so many people seem to feel that they have attained, or they have achieved their spiritual walk, and they sort of sit on little pedestals, little ivory towers. "I have attained, I have achieved. Here I am, you know, come and I will teach you. Sit at my feet and learn." But Paul the apostle said, "Look, I don't consider that I have attained; I don't look at myself as being perfect, the work of the Lord is not yet complete in me."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3:11-12)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스스로 얻었다 생각하거나 영적 신앙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말하자면 작은 상아탑, 즉 자리를 잡습니다. “난 얻었고 이루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지도 못하다. 주님의 역사가 아직 내게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고 합니다.

*but I follow after [I am pursuing], if that I may apprehend that for which also I am apprehended of Christ Jesus (3:12).*

Now, Paul recognized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to recognize who have been apprehended by Jesus Christ. When the Lord apprehended us, and

you can all look back in your own life to that point where the Lord apprehended you, where He said, "I have chosen you and ordained you that you should be my disciple," and we turn to follow Jesus Christ. Now, when the Lord apprehended us, He had in His mind a plan and a purpose for each of our lives. The Lord knew exactly what He intended for you to do. He had a work for you to fulfill. Paul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The Lord apprehended me, but when He did, He had a purpose in mind. I have not yet accomplished that purpose."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 가노라. (3:12)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고 임명했으니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아야할 것을 아직 잡지 못했다. 주님이 나를 아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실때엔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 나는 아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Now, the fact that we are sitting here tonight, we can all say the same thing, "I am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The reason why we can all say it tonight is because we are all here. Why did the Lord apprehend you? So that you could share with Him the eternal glories of His kingdom. And so, when He is finished with me here, this robe of flesh I will drop and rise to seize the everlasting prize and shout while passing through the air. Farewell, farewell, sweet hour of prayer. And one day when I am sitting, looking up in Jesus' face, just overwhelmed by His glory and love, I will turn to the fellow next to me, and I will say, "I finally have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This is what the Lord intended for me, to be with Him in His kingdom, to share with Him His glory. Father, I would that those who You have given to me, to be with me here, would also share with me in the Kingdom."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으므로, 우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땅에서 나와의 모든 일들을 마치실때, 나는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일어나 공중으로 돌리울 때 소리칠 것입니다. 안녕, 잘있거라. 즐거웠던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언젠가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 그의 영광과 사랑에 감격하여 옆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붙잡힌바 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분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며 같이 즐겁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That is why God apprehended you; He has a glorious plan and a purpose for your future. He has a plan for your life now, and we should be as Jesus, who said,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Anything I do for myself is a waste of time

and effort. I am forestalling the plan of God. So what do I do? I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당신의 미래에 관한 영광스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나이다” 라고 할수 있어야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실천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합니까?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A lot of people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live in the past. And with a lot of people, there is just a lot of bad experiences in the past. And the problem is that they are constantly going back and going over those bad experiences. And they are not really going ahead in life at all, because they are so involved in the past. "They really did me wrong. I can't get over that. I can't believe what they did to me. I just can't rise above it. I just..." And living in the past, and being destroyed in the past, and can't go ahead because they are looking backward. Living in the past, there is always that danger of discouragement, which shuts off initiative for the future.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려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계속 과거로 돌아가 그 나쁜 경험들을 계속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에 전진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내게 너무 잘못했다. 도무지 견딜수가 없어. 그들이 내게 그렇게 할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난 정말...” 과거에 살고 있으며, 과거에 의해 망가지고, 뒤를 돌아 보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살면 항상 낙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동기를 막아 버립니다.

The Lord may inspire you to some good work that He wants you to do. Many times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share with your friends what the Lord has laid upon your heart to do. Because so many times, they say, "Well, you really can't do that. You see, someone else already tried that and it just doesn't work." And so they go back to the past, and they pick up the failures of the past, and they are discouraged to try anything in the future. And so looking back to the past, oftentimes, we look at our failures and we are discouraged from trying to go on. "Hey, I tried it before. I tried it for so long. It just doesn't work. I just can't do it. If I could, I would have done it a long time ago," and looking back I am discouraged of trying to go ahead.

주님이 당신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대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당신의 마음 속에 주신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넌 절대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구.”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 실패만 골라서 미래를 향한 어떠한 것도 좌절 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실패만을 보존하여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해봤어.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 보았지만, 그건 안돼. 난 아무래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거야.”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Or, on the other hand, a person looks back and glories in their victories of the past, and they are resting on their accolades. "You know, it is what I used to be, what I used to do. I hold the record and my name is on the record books, and all." They are always looking at their past and doing nothing now. They are stagnating now. They go to the bars and drink lite beer and talk about the touchdowns they use to make. They are living in the past, the past glories. Television would cause you to think that that is all retired baseball and football players do is just hang around the bars drinking lite beer, talking about the past. And it is sad when a person is resting in the past, not pressing ahead. The past has been glorious, it has been exciting to see what God has done, but you know, I am more excited about what God is going to do.

반면에,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승리의 영광에 몰려 안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일들을 하곤 했지. 내가 기록부를 갖고 있었고 내 이름도 거기 다 있지.” 그들은 항상 과거만 보고 현재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침체되어 갑니다.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과거에 자신이 풋볼에서 터치다운을 했던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고, 과거의 영광에 삽니다. 텔레비전은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지금은 술을 마시며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과거도 영광스럽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영광스럽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더욱 흥분 됩니다.

So,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un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3:13),*

We haven't seen anything yet. Like the song sai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And rather than resting in the past, what God has done, let's look forward to what God wants to do.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3:13)**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자비의 빗방울이 우리 주변에 떨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낙비를 내려 달라고 청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안주하는 것 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We haven't yet scratched the surface of the work that needs to be done in the hearts and lives of the people of Orange County, in Southern California, across the United States. We have only begun to see the work of God; we have only begun to see the glory of God poured out. Let's not just sit back and rest, let's press forward to what God has for us in the future. "Reaching forth 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I press," and the word in the Greek is *agonizo*. They say, that in training for the Olympics, you have got to go till it hurts, and you have to work yourself through the pain. I mean, you have got to give it every effort, working through pain, beyond the pain threshold. You run until you ache and you think you can't go anymore, but you keep going. You think you are going to drop, but you keep going. And there comes that second wind, then it seems like you can go forever.

But it is working through it, but it is agonizing. When you are pressing towards the mark. I agonizo towards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우린 아직 하나님께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전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속에서 하실 일들의 걸만 활은 상태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 했으며 하나님이 부으실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편히 앉아 관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래에 하실 일들을 향해 전진 합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헬라이어로는 agonizo 입니다. 그 의미는,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할 때 몸이 아플 때까지, 아픔을 거치는 철저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온갖 힘을 다해,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지나 그 이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플 때까지 달리면 더 이상 못 갈것 같이 생각 되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합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그리도 가야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새롭게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다시 납니다. 쫓대를 향해 전진할때 고통스럽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부름의 상을 쫓아 쫓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Paul said, "Don't you realize that they that run in a race run all, only one receives the prize, so run that you may obtain." There are a lot of people running the race just to say, "Well, I ran in the race." "Well, where did you place?" "Well, I didn't finish it, but I ran in it." Paul said, "One receives the prize, and you run to obtain." In other words, "Give it all you have got."

*I press toward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Let us therefore, as many as be perfect [would be complete], be thus minded [let this be in your mind] (3:14-15):*

바울은, “모두가 경기에 임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하나임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상을 얻기 위해 달려라.” 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경기에 임합니다, “난 경기에서 달렸어.” “넌 몇등했니?” “난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경기에서 달렸어.” 바울은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으므로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라.”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하라.”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3:14-15)**

Let this be the same rule for your life. Forgetting the things which are behind, reaching forth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pressing towards that mark, be thus minded.

*and if in any thing ye be otherwise minded, God shall reveal even this unto you. Nevertheless, whereto we have already attained, let us walk by the same rule, [and] let us mind the same thing (3:15-16).*

Let this be your mind, let's walk by these rules. And so the rule of the Christian life is: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pressing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or reaching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pressing towards the mark.

이것이 여러분 삶에도 규칙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푼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3:15-16)**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법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쫓아 가는 것입니다.

*Brethren, be followers together of me (3:17),*

So, let this be your mind, let this be your attitude, follow me.

*and mark them which walk so as ye have us for your ensample  
[example]. (For many walk, of whom I have told you often, and now tell  
you even weeping, that they are [really] th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3:17-18):*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talk a lot about Jesus Christ but ar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That is, they want still to live after the flesh so bad, that the idea of being crucified with Christ, the death of the old life, the death of the old man, the death of the old flesh life, is irritating to them. They don't want to hear it; they are enemies of that message. They want to tell you that you ought to be prosperous, you ought to be successful, you ought to be living in luxury, you are God's child, you ought to be indulging your flesh. Whatever you desire, just ask God, insist on God, command God. Because you can drive a Cadillac, and you can live on Lido Island. You can have these things of your flesh, you know. And it is an interesting period in church history where those who are indulging their flesh look upon it as spiritual superiority. "You know, if you only had enough faith, you could be jetting across the United States also in your own Lear Jet." So, it is rather tragic, because these people are opposed to the life of sacrifice, self-denial, and yet, that is the first step that Jesus said was necessary to be a disciple of His; you have got to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Him.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3:17)**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울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17-18)**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육신을 좇아 살기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옛생활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과거 육신적인 삶을 버린다는 사실이 그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 메시지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부자가 되어야하고,

성공하고, 화려하게 살아야 하며, 육신의 쾌락을 구해야한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장하며 명령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차도 운전할수 있고 바닷가의 집에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육신의 쾌락을 얻는 것이 영적 최고봉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신이 충분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개인 전용 비행기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희생적인 삶과 자기부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And Paul said, "Follow me; you have me as your example. The old life, you know, I accounted loss. I want to know Him, I want to know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but yet, I want to know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s and the cross. So, those things which we once gained, those things which were once so important to me, I counted loss, and I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because I am pressing forth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And now, follow me as an example, live by this rule, because there are those who don't live by this rule. There are those who are living after their flesh. They are enemies to the cross of Christ, not to Christ Himself, but to that aspect of suffering with Him,"

바울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옛 삶은 다 해로 여긴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도를 알기 원한다. 그러므로, 한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얻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린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를 본받고, 이 법대로 살기 바란다. 아직도 이법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좇아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과 고난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Whose end is destruction, whose God is their belly, and whose glory is in their shame, who mind earthly things [because their minds are always on earthly things] (3:19).*

They are out there, there are many of them. In front of people they can act very holy and sanctified and excited and exhilarated in the things of the Lord, but when they get away from the stage, they can have filthy mouths; they can tell dirty jokes, they are living a two-faced life. They exist; they are there. Paul warns that they are there, they were there in Paul's day; they are there today. They really mind the earthly things. Their mind isn't after the Spirit and after the things of the Spirit, they are more concerned and interested in the types of cars they drive and the things of the flesh and the earthly things, than they are the things of the Spirit. But Paul said,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3:19)*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주님 일에 흥분하는 척하면서, 무대를 벗어나면 더러운 입과 더러운 농담을 하면서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이나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영적인 일보다는 운전하는 자동차나 욕의 것을 따라 땅의 것에 더 관심과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For our conversation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ence also we look for the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change our vile body [or our body of humiliation], that it may be fashioned like unto his glorious body, according to the working whereby he is able even to subdue all things unto himself (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3:20-21)

Our citizenship. "Let's not get too," Paul said, "involved in the world. Let your every contact with the world be just as light as possible." Our citizenship isn't here. Abraham and those saints of the Old Testament, the scripture said, confessed that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on this earth, that they were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th foundations whose maker and builder is God. They were looking for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ey weren't looking for a place, and so they roamed the earth, as outcast, not possessing of the earth.

우리의 시민권. 바울은, “세상에 너무 관여하지 말자. 세상일은 최대한 가볍게 하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땅에서 외국인인과 나그네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세상의 거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랑자 같이 살았으며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Jesus roamed the earth as an outcast, didn't seek to possess any things of the earth. Why?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the heavenly kingdom.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ich we look for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when He comes, He is going to change our bodies, that they might be fashioned like His own glorious image.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but it doesn't yet appear what we are going to be, but we know when He appears, we are going to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1 John 3:2).

예수님도 방랑자 같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런 형체처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I'll show you a mystery, we are not going to all sleep, but we are all going to be changed in a moment, in a twinkling of any eye. For this corruption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and then wi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Oh, death where is thy sting? Oh, grave where is thy victory?” (1 Corinthians 15:51-55)

When Jesus comes again, we will each experience a metamorphosis. “This robe of flesh I will drop and rise to reap the everlasting prize.” The new body,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uman hands, the eternal house that God has created for my spirit. And so, this body will be changed, and I will receive a new body like His, fashioned like His glorious image, according to that power of the Spirit that raised Him from the dead.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쓰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 51-55)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가 변태현상을 체험할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일어나리라.” 새 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내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변하고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스런 형상과 같은 새 몸을 얻을 것입니다.